

자기명시화의 처음과 끝

필자가 대학에 갓 입학하던 때 어느 주일의 일입니다. 그때 주일설교에서 필자는 뜻밖의 신앙적 충격에 휩싸이게 되고, 급기야 강렬한 지적 열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계기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지 않은 자 중에서 최초의 메시아는 고레스입니다”라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생경하고 낯설기 그지없는 고레스(Cyrus the Great, *Kores*, 𐎧𐎠𐎼𐎹 B.C.590?-B.C.530)라는 사람의 이름은 차치하 고서라도 그가 최초의 메시아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기에 충분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못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사 45:01-03)

필자에게 신앙적 사건이라면 사건일 수 있었던 이때의 충격은 이후로 3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필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페르시아[성경에서는 바사(波斯), Persia]에 관심을 갖고 연구에 임하게 한 결정적 동인(動因)이 되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약이 된 셈이고, 그러기에 고레스는 필자에게 성경의 여러 인물가운데 평생을 통해 가장 잊지 못할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필자의 지적 열망은 시나브로 강도를 더해가게 됩니다. 그것도 나름 전문성이 가미된 ‘뼈딱한 시각’으로 말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필자의 어머님께서는 필자에게 그러한 자세도 좋지만 때로는 ‘덧어놓고 믿는 믿음도 소중한 것’이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어머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뀌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 뜻을 바로 이해하기까지에는 수많은 눈물과 땀을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뜻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뼈딱한 시각’이라고 함은 대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곧 고레스로부터 시작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야말로 붓물 터지듯 하였습니다(그 핵심은 신앙적 의문이라기보다 역사적 사실이나 명칭에 관한 의문이었음을 참고로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손에 들었던 칼이 돌[석기(石器)]일까? 청동기(靑銅器)일까? 아니면 철기(鐵器)일까?”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이었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는 누구였을까?”

“솔로몬을 찾아간 여왕이 다스린 나라로서 스바는 지금의 어디일까?”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취했다고 하는데 헷은 지금의 어디일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고
그때 이집트의 왕은 누구였을까?”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졌을까?”

“앗수르, 바벨론, 바사, 갈대아 등의 제국은 어떻게 명멸해 갔을까?”

“느부갓네살, 불,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사르곤 이들의 치적은 무엇이
있을까?”

“바벨탑과 아카드의 함무라비대왕과는 별반 관계가 없는 것일까?”

“함무라비대왕은 성경에 왜 그 이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보이고
있다면 그 이름은 무엇일까?”

“현재 중동의 지구라트는 바벨탑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척박한 사막에서 느부갓네살은 공중정원에 어떻게 물을 끌어다 올렸을까?”

“산헤립의 18만 5천 군사가 궤멸된 것이 페스트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

대체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성(事實性)에 기초한 의문들은 내용에 비추어
일시에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털어 넣어야
그것도 피상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의문은 성경의 역사적 실재성(實在性)에 비추어 어디서
어떻게 해(解)를 찾고 또 이해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물론이고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만약 역사적 사실성을 담보할
수만 있다면 성경은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지혜’를 아우를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살아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필자 경험으로는 이 문제 중에서 한 둘을 빼고 어느

하나 교회에서 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어떤 현상을 논리(여기서는 '역사적 사실성')로 접근하는 것은 과학적(역사적) 사고 내지 연구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로부터 객관성과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실제적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경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곧 성경해석에 있어 과학적·논리적 접근법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연구방법이기 에 어떤 경우라도 항상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항상 말씀의 법, 언약의 말씀 가운데 면면히 흐르고 있는,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결단코 도외시하거나 놓쳐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개 성경말씀을 필자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만 덮어 놓고 믿는 경향이 다분한 것 같습니다. 곧 역사적 실재성에는 별반 관심이 없고 제이무리 역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다만 말씀으로 가두어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과학적 논리나 합당한 실재적 논리가 우리의 신앙 앞에 다가와 충돌할 요량이면 뜻밖의 신앙적 정체감(停滯感)에 사로잡히기 십상이고, 이것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면 신앙의 위기에까지 이르게도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주위에서 흔히 않게 볼 수 있습니다(물론 흔들리지 않는 울퉁은 신앙을 간직한 신앙의 시니어들에게는 논외의 사항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사이 창궐하고 있는 이단파(적그리스도인)로서 '신천지'를 예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곧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은 애초에 신천지에 발을 처음 들여놓은 사람도 있을 테지만 필자생각에는 그보다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신천지에 유입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신천지에 크리스천이 유입될 수 있도록 방관한 우리의 죄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작금의 사태는 필자가 예전에 대학시절 가졌던 위에서의 의문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올바른 신앙을 계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강론이나 설교를 포함하여)이 교회에 부재하거나 미약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는 비단 교회에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도 처지는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신학적(神學的) 견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신학(神學)은 13세기 이래 철학과의 조우(遭遇)를 통해 확립된 학문입니다. 신학의 본질과 정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說)이 존재하지만 우리식대로 그 대표적인 것[통설(通說)] 하나를 들어 공식화하면, ‘기독교 신학 = 기독교 신앙(주, 본질) + 세상의 지혜(종, 현상)’로 일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하인리히 오토, Heinrich Ott).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데카르트(René Descartes)는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Cōgitō ergo sum).”는 말을 남겼는데, 이러한 철학적 사유(세상의 지혜)가 싹을 키워 점점 기독교 신앙보다 지위를 높여가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교회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던 신학이 점차 대학의 학문으로

전이(轉移)되면서 이윽고 ‘자기확실성’(自己確實性)이 ‘하나님의 확실성’[자기명시화(自己明示化)]보다도 선행하기에 이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가 앞서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학의 학문이 된 신학은 위 공식을 깨뜨리고 급기야 기독교 신앙이 없이도 인간 마음대로 자신(나)의 어떤 철학적 사유에서 비롯된 자기확실성의 결과를 보다 중요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신학과 신앙과의 관계는 위 공식에 따르면 ‘기독교 신앙 = 기독교 신학 - 세상의 지혜’로 보아 자기확실성(세상의 지혜)보다 자기명시화(기독교 신앙)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에도, 되레 이를 거꾸로 보거나 때로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시각에서부터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결과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자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경해석(기독교 신학)에 있어 과학적·논리적 접근법을 경시하거나 도외시하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배척(排斥)하는 우(愚)에까지 이르고야 맙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신천지일 수 있고 단초가 예전 필자의 의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필자가 이 지면에서 되짚어 두고자 하는 핵심은 오늘날 성경해석(강론이나 설교 및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과학적·논리적 접근법이 너무나도 경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감생심 교회의 교육프로그램은 둘째치고서라도 주일설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우리식대로 이야기하기에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통상(通常)일 것입니다. 곧 성경을 통해 목회자의 ‘자기확실성’에 기한 교훈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론(교훈)은 우리에게 마치 그날의 일용할 양식으로 끝나버리기 십상입니다(전자).

만약 ‘자기확실성’(세상의 지혜)이 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명시화’(하나님과 의 교제를 통한 은혜의 깨우침)에 본연의 뜻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필자가 대학입학 즈음 목사님에게서 들었던 “최초의 메시아는 고레스입니다”라는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후자). 이 말 한마디는 어찌 보면 필자의 인생을 바꾸어놓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자와는 다르게 그날의 일용할 양식이 평생의 양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사성어로 비유하면 전자는 ‘오십보백보’(五十步百步)가 될 것이고, 후자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될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과 사람사이의 대화(祈禱)’인 동시에, ‘사람과 사람사이의 대화(傳道, 말씀의 전파)’인 학문입니다. 또한 신학은 세속적인 인간과학(人間科學)과의 결실(신앙적 의미) 있는 만남 속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신학은 신앙의 자기명시화(하나님과 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한)를 배경에 두고 전도(傳道, 또는 설교)에 있어서 현실을 단순화하지도 비의적(悲意的) 독백 속에 안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학의 정체성을 옳곧게 파악하고 있는 목회자는 ‘가르치는 자 자신이, 곧 듣는 자’임을 올바르게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가르침(설교)은 말씀(기도)으로부터 비롯된 은혜의 발생사건이고(칼 바르트, Karl Barth), 진리자체를 새롭게 깨닫거나 다시금 바로 세길 수 있는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에밀 브루너, Emil Brunner).

학자들은 쇠락하고 있는 미국의 개신교의 실상을 목도하며 이유를 두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크리스천들의 손에서 성경찬송가가 사라진지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을 기치에 두고 현실적 교훈에 설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목회자의 저급한 영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현 세대의 추이가 ‘자기확실성’으로 치닫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이고 목회자 또한 자기명시화에 반드시 요구되어지고 필수불가결한 하나님과의 대화(교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시때때로 교회의 문을 넘어 세상의 집 앞에 서성이면서 그 지혜를 탐닉하고 있다고 적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스타강사처럼 재미있게 꾸며대고, 마땅한 이야기를 지긋이 돌려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설파하기도 하고, 가십거리나 세간의 화젯거리를 기록에 비추어가며 넌지시 말씀으로 갈아입히고, 이런 화제와 저런 화제를 뒤섞어 근본도 배경도 없는 논리를 역설(逆說)하고, 역사적 사실성이나 실재성을 도외시한 채 이를 말씀으로만 가두어두고자 애쓰고, 기록(말씀)의 한 토막만을 잘라 꼬끼리 몸통인지 하마 몸통인지도 모르게 새 빔을 입히고, 각양의 거짓사례와 조작된 통계를 제멋대로 각색하고, 허구의 스토리(경험적)를 통해 약자의 연약함을 파고들기도 하고, 정체불명의 인물이나 책이나 간증 등을 죄다 동원해 왜곡하는 등 이러한 양태는 모두 ‘자기확실성’의 산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03:14-17)

‘나의 사랑하는 책’(199)이라는 찬송가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미있게’라는 단어에 함축된 뜻은 신학적 견지에서 ‘기독교 신앙’(전자)과 ‘세상의 지혜’(후자)가 주종관계로서 옳곧게 중심을 잡고 수용되어 있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의 불균형 때문에 그간 우리는 교회 문밖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를 영원히 탕자로 취급하겠다는 말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눅 15). 그 팻말은 ‘신천지 교인 대환영’이라고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기명시화’의 날선 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가르치는 자 자신이, 곧 듣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듣는 자 자신이, 곧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추상같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필자 어머님께서 들려주신 ‘덮어놓고 믿는 믿음도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바로보기에, 신학이나 강론이나 설교나 들음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모두가 우리의 알팍한 지식과 알량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는 ‘성령의 역사(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02:08-09)

제이무리 덮어놓아도 성령의 역사는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이무리 열어놓아도 성령의 역사는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필자 어머니의 뜻 또한 있는 그대로 덮어두면 어떨는지요? 곧 ‘덮어놓고 믿는 믿음의 뜻’ 또한 덮어놓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은혜)를 사모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덧붙여 말입니다.

모름지기 종 된 ‘자기확실성’이나 주인 된 ‘자기명시화’는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서 처음과 끝이 ‘기도’에 있음을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 08:26)